

(2) 타마츠시마 진자(신사) (제 6 권-917 번)

【알기 쉬운 문장】

야스미시시 와고오오키미노 토코미야토 츠카에마츠레루 사이카노유 소가이니미유루
오키츠시마 키요키나기사니 카제후케바 시라나미사와키 시오후레바 타마모카리츠츠
카미요요리 시카조토오토키 타마츠시마야마

【해설】

이 시는 만요슈(만엽집) 제 6 권에 실린 시(917 번 시)입니다. 만요슈에는 초카(장가)와 한카(반가)로 구성된 노래가 있습니다. 초카(장가)는 5 음, 7 음의 어순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는 노래를 말합니다. 한카(반가)는 5, 7, 5, 7, 7 음의 탄카(단가)입니다. 이 시비의 노래는 초카(장가), 왼쪽 시비의 두 구절이 한카(반가)입니다.

진키원년(724)에 쇼무텐노(천황)은 키노쿠니(와카야마현)타마츠시마를 찾아, 14 일간 체류했습니다.

천황과 동행한 야마베노 아카히토 씨가 공식적인 의식의 장소에서 읊은 것이 이 시입니다. 천황을 찬양, 와카노우라 타마츠시마 지역을 칭송합니다. 별궁이 자리한 사이카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점점이 이어지는 섬들 밀물과 썰물의 변화가 풍부한 풍경, 해조류를 베는 사람들의 움직임 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神)시대부터 이와 같이 귀한 타마츠시마 산이다’라고 노래하며 마무리합니다. 보통 관료들은 아카히토 씨가 힘차게 읊는 이 시에 매료되어, 천황의 고귀함과 이 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시비의 문자는 와카야마의 만요(만엽)고지를 사랑하고 그 보전에 힘을 다한 **이누카이 타카시** 씨의 필적입니다.